

데스크탑



조기철
부국장 겸 사회부장

강기정호에 거는 기대

오래다. 양적 팽창에서 질적 도약으로 가야 하지만 여전히 멈춰 서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민선 8기 강기정호가 어떤 시작으로 광주시를 진단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무척 궁금하다.

강 시장이 당장 스스로 밀린 숙제라고 언급한 이른바 '5+1' 당면 현안은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을 포함해 지산IC, 어등산 관광단지, 백은 지하차로, 전방·일신방직 부지 활용 등 5가지 현안에 대해 연말까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지 관심사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대구 사례를 적용해 준비하면서 국가 주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전략도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고물가·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광주의 경제도 불안 요소가 가득한 점도 우려된다. 강 시장은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시대의 화두인 양극화·불평등 완화까지 진두지휘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인사의 중요성도 과감히 해선 안된다.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는 필연 공정과 상식이 담보되어야 한다.

앞서 광주시가 5개 신산업지구와 5개 신활력 특구를 통한 '광주 신경제지도' 완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단행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행정 편의에 따라 일부 실·국과 과, 팀을 통폐합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민선 8기 '강기정호'의 광주시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과 사람 중심의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진리다. 기

본적으로 조직의 개혁 주체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인사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인사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켜 누구에게나 믿음을 줄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자질이 떨어지는 측근의 낙하산 인사는 어불성설이다.

시민들과 소통도 중요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시민들은 성숙하고 강하다. 시정의 감시자이면서 든든한 응원군이기 때문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결여한 정책은 성공 가능성도 희박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갈등 해소 역량을 갖춰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한스 켈젠은 "사람들은 세상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고 했다.

이렇듯 단체장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 강기정 시장은 앞으로 4년 점령군이 아닌 '지역 세일즈맨'으로 거듭나 시민들을 위한 특급 도우미를 자처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한발 한발 내딛기를 바란다.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으로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를 내걸며 본격 출항한 강기정호가 광주의 경제를 되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행복한 복지

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 집에 수도꼭지나 전기(전등, 스위치)가 고장 나면 곧바로 출동해 해결해 주고 있으며 그 외 찢어진 방충망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등 다양하고 소소한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르신들에게는 커다란 위험요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 이발소나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미용 전문봉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커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함 7979봉사단이 직접 방문합니다.

셋째, 7979 복지머니 운영입니다.

남구청 홈페이지 복지정보에 230여 종의 복지서비스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게재해 수시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관내 복지시설이나 단체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도 많이 활용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채널 운영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남구 7979복지콜센터 검색하여 친구추가 버튼 클릭 후 친구 맺기를 통해 새로운 복지정보를 매주 제공하고 있으며 7979센터와 1:1로 카카오톡 복지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복지콜센터 상담 47,669건, 7979봉사단의 소소한 생활불편사항 처리 2,642건, 7979 복지머니 복지정보 301건, 복지 서식 473종, 카카오톡 친구맺기 1,992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해 주민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7979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 2,4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및 서면방식으로 '센터 사업내용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 비중이 2020년 92.1%보다 0.3% 증가한 92.4%로 나와 행복한 복지 남구 7979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편해도 참고 살아가는 불편함을 전화 한 통화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7979(칠구칠구)는 친구친구를 숫자화 한 것으로 친구처럼 다정하고 스스럼없이 다가가 도와준다는 뜻으로 주민 여러분 곁에 항상 행복한 복지 7979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고



남구 7979센터 담당 팀장

7979센터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상담부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선 7기 김병내 청장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6월에 개소했습니다.

7979센터는 크게 4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궁금할 때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 607-7979로 전화 주시면 복지상담 및 지원내용을 전화로 알아보실 수가 있으며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7979봉사단 운영입니다.

봉사단은 남구 17개 동별로 구성된 자원봉사 조직이며 수도나 전기, 미용 등 기술전문 봉사자가 25명, 일반 봉사자가 112명 총 137명이 현

특지광장

다수의 시민들이 노사관계 및 집단 민원 등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는 집회 현장을 봤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집회 시위의 경우 헌법 제21조 명시된 기본적 권리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집회 시위를 개최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확성기 등 소음을 유발해 집회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헌법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집회 시위 중 일어난 모든 것을 참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

위의 자유도 그 정도가 지나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고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모든 집

회는 헌법에 규정된 집회 결사 자유에 따라 집회 시위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돼야 할 것이다. /임상우 목포경찰서 경비전력계 경장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subscription rates.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복합쇼핑몰, 정부가 다 해줄 순 없다

광주시는 향후 유치할 복합쇼핑몰의 모델로 '메타 N-컴플렉스' (Meta N-complex)로 제시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메타 N-컴플렉스'는 국가지원·민간자본·행정이 시너지를 내는 상생·연결·투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민간 수익성과 공공성의 공존을 위한 국가 지원형 모델로 사업비 9,0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 요청한 사업비 9,000억원은 적잖은 예산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쇼핑몰 이용 고객과 시민 편의를 위한 연결수단, 즉 트램(도시철도)과 주변 연결도로 등 교통망 구축에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디지털 기반 물류체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온라인 거래 성장과 쇼핑몰의 대형화·문화공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복합쇼핑

몰 광주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정부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모두 챙겨줄지는 미지수다. 사실 복합쇼핑몰 유치는 지자체 영역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문에 윤대통령이 후보 당시 복합쇼핑몰을 정부 영역으로 확장해가는 것에 대해 거센 거부감이 있었다. 다만 새 정부가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밝힌 만큼 행정·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외면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보조적으로 참가하는 형태의 계획안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예타(예비타당성)도 거치지 않았다. 검토에 장시간 소요될 것이다. 기반 시설 등은 국비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 투자로 적극 유치하면 국가가 보조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밥상물가 다 올랐는데 쌀값만 하락

식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요즘 한국인의 주식인 쌀 값은 끝없이 추락하면서 농민들이 고물가에 소득감소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한 산지 쌀값은 현재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쌀값이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의 만생 과잉생산을 근절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광주지역 쌀 평균 도매가격은 20kg당 4만 3,700원이다. 전년동 동월 5만7,000원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20% 이상 떨어진 가격이다.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6.3%, 7.1% 오른 것과도 대비된다. 산지 쌀값은 지난 5월 80kg당 17만9,404원으로 지난해 10월 22만7,212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환율 급등 등의 여파로 작년 말부터 밥상

물가가 연일 오르는 상황에서 쌀값 하락세는 유독 눈에 띈다. 쌀 가격 '나 홀로 약세'의 근본 요인은 한국이 쌀을 사실상 전량 자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거의 없는데 만큼 물류난과 환율 등 외부 요인에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국내 작황만 좋으면 쌀값은 오를 일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가격 약세 요인으로 과잉생산 및 소비 부진을 꼽았다. 국민의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적 공급과잉 속에서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정부 매입과 공익형 직불제 확대, 분질미 제배 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쌀 생산량 조절에 도움이 될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도 공급량이 지나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쌀 공급량 조절과 동시에 국민의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고품질 쌀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성녹돈버거 소비자 입맛 사로잡길

기지사첩



이주연

제2사취부 기자

비자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출연해 보성의 우수한 농산물을 재치 있게 알렸고 태어나 처음 햄버거를 맛본 80세 김형남 할아버지의 재미있는 사투리가 더해지면서 정감 가는 흥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맥도날드가 한국의 맛 프로젝트 첫 번째로 내놓은 매뉴 창녕 갈릭 버거는 국내산 식재료 사용에 대한 큰 호평과 함께 2초에 1개꼴로 판매되는 저력을 보였다.

전국적인 조기 품절 사태가 일어나는 등 큰 사랑을 받으며 한정판 버거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높인 인기에도 창녕 갈릭 버거가 단종된 이유는 농가와 계약 재배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필요한 재료의 양에 비해 물량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로 맥도날드는 녹차잎을 먹여 키운 돼지 140톤을 사용할 예정이다. 녹돈버거는 다음달 초까지 판매되는데, 상시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 판매 추이와 재료 확보 가능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창녕 갈릭 버거보다 많이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농가와 지자체, 대기업이 손을 잡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길 기대한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세계적 기업 맥도날드가 한국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길 바란다.

맥도날드가 보성녹돈을 '한국의 맛 프로젝트' 두 번째 맛으로 결정하면서 이를 활용한 보성녹돈 버거를 최근 출시했다.

이에 맥도날드는 보성녹돈버거출시를 기념해 보성군 한국 차 문화공원에서 '보성녹돈 버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맥도날드 매장이 없는 보성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선착순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제품 시식 행사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보성녹돈 버거는 그간 맥도날드가 고수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를 사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보성녹돈버거의 TV광고에 실제 보성지역 농부들이 출연해 '스르르 타령'을 부르며 보성의 맛을 알렸다.

녹돈버거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표현해 소